

## 한국문학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을 위한 필요 조건\*

- 체험을 통한 ‘경계 허물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이 복 규\*\*

### 차 례

- |                             |                      |
|-----------------------------|----------------------|
| 1. 여는말                      | 5. 문학과 비문학(음악·민속·구술문 |
| 2.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경계 허물기       | 화·국어학)의 경계 허물기       |
| 3. 기록문학과 구비문학의 경계 허물기       | 6. 맺는말               |
| 4. 한국어문학과 한국국적문학의<br>경계 허물기 |                      |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문학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을 위한 필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이론적인 논의가 아니라, 필자의 연구 체험을 통한 ‘경계 허물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새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필요 조건이 갖추어져

\* 이 글은 2012년 11월 24일 부산교대에서 ‘한국문학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이란 기획주제로 열린 한국문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의 기조발표 원고를 심사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서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필자의 연구 경험을 근거로 피력하였다.

한국문학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경계 허물기’라고 강조하였다. 영역간의 경계를 허물어야만 한국문학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 네 가지 경계를 허물자고 했다. 첫째,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경계, 둘째, 기록문학과 구비문학의 경계, 셋째, 한국어문학과 한국국적문학의 경계, 넷째, 문학과 비문학(음악·민속·구술문화·국어학)의 경계 등을 허물자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문학 학계는 여러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기록문학과 구비문학, 한국문학과 한국문학이 아닌 것, 문학과 비문학 등의 구분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작업상의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 존재로서의 한국문학은 총체적이고 미분화된 무엇일 것이다. 비록 영역을 구분해 작업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우리의 연구가, 한국문화를 해명하고 한국인이 누구인지 해명하는 데 기여해 인문학의 위기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그 동안 필자가 해온 관련 작업들을 예증 삼아 논의하면서, 앞으로 해볼 만한 연구 거리가 무엇인지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텍스트, 경계, 발굴, 재조명, 고전문학, 현대문학, 구비문학, 기록문학

## 1. 머리말

이번 기획주제인 ‘한국문학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자. 핵심 단어인 ‘텍스트’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주석, 번역, 서문 및 부록 따위에 대한 본문이나 원문”(원전原典으로 순화)<sup>1)</sup>이다. 주석이

나 번역이 가해지기 전의 원문(원전) 또는 그 원전의 본문만을 일컫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발굴’과 ‘재조명’인데, ‘발굴’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 밝혀냄.”이고, ‘재조명’은 “일이나 사물의 가치를 다시 들추어 살펴봄.”이다.

이 개념을 보면, ‘한국문학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은 그 내포와 외연이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한국문학 연구 행위는 새로운 텍스트의 발굴 아니면 새로운 이론으로 기존의 텍스트를 재조명하는 일,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속하거나 둘 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필자의 역량으로 이 제목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불가불 한정지어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제를 달았다. “체험을 통한 ‘경계 허물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단 것이다. 새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필요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필자의 연구 경험을 근거로 피력하고자 한다. 학문을 이론학과 자료학으로 구분한다면 필자는 자료학자로 분류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견을 개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아, 이런 제목으로 정리했다는 것을 밝혀둔다.

한국문학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경계 허물기’라고 생각한다. 영역간의 경계를 허물어야만 한국문학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문학 학계는 여러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기록문학과 구비문학, 한국문학과 한국문학이 아닌 것, 문학과 비문학 등의 구분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작업상의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 존재로서의 한국문학은 총체적이고 미분화된 무엇일 것이다. 비록 영역을 구분해 작업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우리의 연구가, 한국문화를 해명하고 한국인이 누구인지 해

---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명하는 데 기여해 인문학의 위기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그 동안 필자가 해온 작업들을 살펴보니, 결과적으로, 모두 이 ‘영역간의 경계 허물기’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제 그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필자의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해 볼 만한 연구 거리가 무엇인지도 제시하도록 하겠다.

## 2.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경계 허물기

### 1) 필자의 관련 연구 성과 : 서(序) 갈래의 연속성과 운동주 <서시> 문제

최근 한국문학논총 제61집에 필자는 「운동주의 이른바 ‘서시’의 제목 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다소 도발적인 제목이다. <서시>는 누구나 운동주가 붙인 제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필자는 ‘이른바 서시’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했다. 원래는 제목이 없는 글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序)였다, 다른 시들은 독립작품으로서, <자화상>을 비롯해 다른 작품들은 원래부터가 시라고 생각해 제목을 붙여 발표했고 이 시집에 묶였으나, 이른바 ‘서시’는 서(序)로 쓴 것이기에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 그럼 서(序)라고 제목을 붙이지 왜 아무런 제목도 붙이지 않았나? 서(序)는 한문문학의 전통에서 늘 산문 양식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시(詩)적인 리듬을 가진 이 글을 서(序)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 그래도 독자들은 첫 머리에 붙은 그 글을 본문의 시들과는 구분되는 서(序)로 인식하리라 믿기에 아무런 제목도 붙이지 않고 엮어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운동주 사후에 제1판을 출간하면서부터 제목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가해졌으니, 제1판에서는 ‘(序詩서시)’라고 표기하고 부제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시)’라 적어 넣었으며, 제2판에 와서는 괄호를 벗긴 채 ‘序詩(서시)’로 적음으로써 그때부터 이 작품을

독립적인 시로 인식하는 평론문이 비로소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 논문의 핵심 요지다.

고전문학 전공자인 필자가 이 논문을 쓸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고전문학(한문학)의 산문 갈래 중의 하나인 서(序)를 연구하되,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집으로 한정해 그 존재양상을 살피되 현대문학기에 와서도 시집은 이어지고 있으니, 현대 시집의 서(序)도 통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고전문학 전공이니 고전 시집의 서(序)만 살펴보려고 했다면, 윤동주 시집의 서두에 실린 이른바 ‘서시’가 서(序)의 오랜 역사에서 볼 때는 지극히 일상적일 수 있는 서(序)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문학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 중에서 ‘재조명’에 더 무게중심을 둔 사례라 하겠다.

## 2) 앞으로의 가능한 연구 : 한문 산문문체들의 현대적 양상

앞에서 윤동주의 이른바 ‘서시’의 제목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 사례가 지닌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편의상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경계짓고 있지만, 사실은 고전문학의 문학관습이 현대문학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 단순한 지속이 아니라 변용되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점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전문학 기에는 서(序)가 자작이 아니라 타작으로 이루어진 게 문학관습이었으며, 그러다 보니 독립적인 글로 인정받았던 것인데, 현대에 와서는 타작 보다는 자작이 대세를 이루는 등 변화 속의 지속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2)</sup>

이렇게 본다면, 『동문선』에 수록된 30여 종의 한문 산문 문체들이 현대문학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 지속과 변이의 양상과 그 의미를 탐색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연구할 텍스트가 많이 발굴되거나 재조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미 거론한 서(序)만 해도, 필자는 시집들의

2) 이복규, 「현대 시집 서문과 전통시대 시집 서문의 비교」, 한국고서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서경대학교, 2012. 5. 19, 3~18쪽 참고.

서(序)만 살폈지만 대상을 확대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기의 모든 서(序)를 통시적, 공시적으로 다룬다면 흥미있는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학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머리말’이 과연 전통 서(序)의 정신에 부합하고 있는지 벗어난 것인지도 규명될 수 있을 것이며, 서양의 머리말 전통과 비교하면 문화적인 공통성과 차이점도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서(序)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통 제문(祭文) 및 축문(祝文)과 오늘날의 기도문, 서(書)와 오늘날의 편지 및 이메일, 전통 비문(碑文)과 오늘날의 비문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3. 기록문학과 구비문학의 경계 허물기

#### 1) 필자의 관련 연구성과 : <오륜전전서>의 재해석

<오륜전전>은 심경호 교수가 안동 의성김씨 천상종가(川上宗家) 문서를 살피는 과정에서 발견해 학계에 보고한 한문소설이다(국문본도 있었다고 하나 현전하지 않음).<sup>3)</sup> 서(序)를 쓴 연대가 1531년으로 적혀 있어, 고소설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부각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 서(序)에 이 작품의 형성 과정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더욱 소중한데, 심 교수는 이 서(序)<sup>4)</sup>를 해석한 결과, “(중국 회곡)<오륜전비기(五倫全備記)>

3) 심경호, 「오륜전전에 대한 고찰」, 애산학보 8(애산학회, 1989), 111~130쪽 참고.  
 4) 余觀閭巷無識之人，習傳諺字，謄書古老相傳之語，日夜談論。如李石端·翠翠之說，淫褻妄誕，固不足取觀。獨五倫全兄弟事，爲子而克孝，爲臣而克忠，夫與婦有禮，兄與弟甚順，又能與朋友信而有恩，讀之令人凜然惻怛，豈非本然之性，有所感歎。是書時方爭相傳習，家藏而人誦，若因其所明，就其所好，則其開導勸誘之方，豈不易耶。但此書出於不甚知道者所爲，故措辭荒拙，敘事舛錯。余於是反覆窮究，有意而不暢於語者潤色，語俚而不合於道者釐正，凡重複浮誕之辭，淫戲俚野之說，並斥削而不載。其言一出於正，使觀是書者，有感激起敬之心，而不至於閑中戲談之具，則其於扶植明教，不爲無助。故又以諺字翻譯，雖不識字，如婦人輩，寓目而無不洞曉，然豈欲

→(한문소설) <오률헌전(五倫全傳)>→(국문번역본)<오률헌전>”이라고 보았다. 철저하게 ‘기록물→ 기록물’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이 서(序)의 내용을 해독한 결과, 이런 견해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심 교수의 해석대로 읽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눈으로 희곡 원전을 보아가면서 한문소설로 옮길 경우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그대표적인 사례다.

- (작품제목) 오률헌비기(伍倫全備記)----->오률헌전(五倫全傳)
- (주인공의 성) 伍(오)----->五(오)
- (지명) 府州(부주)----->富州(부주)

심 교수의 가설처럼, <오률헌전>의 작자가 원전인 희곡 <오률헌비기>를 눈으로 보아 가면서 개작한 것이라면,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伍(오)률헌’의 ‘伍(오)’를 ‘五(오)’라고 적는다든지, ‘府州(부주)’를 ‘富州(부주)’로 적는다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런 변화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기록물→구술물→기록물’이란 과정을 밟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희곡 원전 <오률헌비기>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설화처럼 말로 구연했고, 이것을 들은 사람이 글로 다시 적으면서 소설 <오률헌전>이 형성된 것으로 본 것이다. 필자의 가설에 따르면, 위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은 한결 쉽게 풀릴 수 있다. 구비문학에서 각편이란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어찌면 구비문학의 정체성을 이루는 부분인바, <오률헌전>의 형성과정에도, 구비문학적인 ‘구연(구술)’과정과 그에 따른 변이가 생겨 마침내, 희곡 원전과는 일부 그 모습을 달리하는 소설 <오률헌전>이 탄생했다고 재해석한 것이다. 그 결과, 희곡 원전 <오률헌비기>를 이야기로 구술한 것

---

傳於衆也, 只與家中妻子輩觀之耳. 嘉靖辛卯孟冬 洛西居士 序.

을 토대로 한글만 아는 촌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글로 기록했다는 그 <오률헌전>이야말로 국문소설의 효시라고 봄으로써, 이른바 ‘오률헌전 최초 국문소설설’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갔다.<sup>5)</sup> 심 교수는 텍스트를 발굴하였고, 필자는 구비문학의 ‘구연’ 개념을 이 한문텍스트의 해석에 도입해 이 텍스트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최초 국문소설로 보고한 셈이다.

심 교수와 필자의 해석이 상반되게 된 까닭은 어디 있을까요?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기록문학 안에서만 기록문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과 구비문학까지 아울러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시각의 차이에서 빚어진 결과가 아닐까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더 있다. 필자가 발굴한 <왕시봉전>의 형성과정 문제도 똑같은 경우이다. 기존의 학자들은 모두 ‘기록물→기록물’이란 도식만을 고수했기에, 원전과 파생본 사이에 보이는 미묘한 차이들을 해명하기 어려웠는데, 구비문학적 ‘구연(구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가설을 제기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한다.<sup>6)</sup> 그뿐만이 아니라, 국문소설의 각 이본들에서 보이는 미묘한 표기상의 차이들도 ‘기록물→기록물’의 패러다임만으로 접근해서는 풀리기 어렵다. 국문시가인 시조는 물론 한시에 각편이 많은 현상도 모두 이것들이 근대와는 달리, 구전되어 귀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록문학 연구자들은 온전한 연구를 위해, 기록문학과 구비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자세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앞으로의 가능한 연구

첫째, 소위 ‘실전(失傳) 고소설’, ‘실전(失傳) 판소리’, ‘실전(失傳) 신소설’, ‘실전(失傳) 가요’의 추적 작업이다. 제목이나 줄거리만 전할 뿐 텍

5) 이복규, 우리 고소설 연구(역락, 2004), 105~123쪽 및 이복규, <오률헌전서의 재해석>, 어문학 75(한국어문학회, 2002), 347~364쪽.

6) 같은 책, 125~136쪽 참고.



스트가 전하지 않는 작품들의 추적 작업이 그것이다. 위의 작업에서 얻은 제 아이디어로는, 이들 실전(失傳) 작품들 가운데에서 기록문학은 구전자료로, 구전자료는 기록으로 형태를 바꾸어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실전 판소리로만 알았던 작품(<왓짜타령>, <강릉매화타령>)이 고소설자료집 또는 필사본 고소설 형태(<게우사>, <매화가라> 및 <골싱원전>)로 발견된 사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반대로, 원래는 기록문학이었던 것들이 설화나 민요로 전승되어(갈래가 바뀌어) 설화집이나 민요집에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기록문학과 구비문학이 별개로 존재한 게 아니라 상호 침투·교섭하였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다면, 이들 실전(失傳) 작품들을 의외의 갈래에서, 변형된 모습으로나마 발굴할 수 있다고 필자는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체험을 들어본다면,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비롯해 수많은 구전설화집 중에는 고소설을 읽고(또는 고소설을 듣고) 이를 기억했다가 구술한 게 틀림없는 자료들이 상당수 있다. 필자가 채록해 보고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 중에는 신소설이 기억을 거쳐 설화로 구술되었다고 보이는 자료도 있다. 임동권 선생의 『한국민요집』에도 고소설이나 설화를 민요화한 게 많은데, 이른바 실전(失傳) 문학자료라 해서 사라졌다고만 아는 자료들이 민요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둘째, 말과 글만이 매체이던 시대에서 다매체 시대로 전환된 지금, 전파, 영상, 사이버문학(인터넷·웹·SNS)도 문학으로 포괄하는 관점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록문학과 구비문학의 경계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경계도 허물어야 한다. 일단 열어놓고서 그 안에서 문학성을 따져 알곡과 쪽정이를 가릴마정, 일단은 포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4. 한국어문학과 한국국적문학의 경계 허물기

한국문학의 개념을 ‘한국인이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른바 협의적인 의미의 한국문학 개념이다. 이것만을 고집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 텍스트들만을 한국문학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의 한국문학사 책들이, 이름만 ‘한국’문학사일 뿐, 실제로는 ‘남한(대한민국)문학사(역으로, 북한에서 나오는 ‘조선’문학사 역시 사실은 ‘북조선(북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 문학사 또는 ‘한민족’문학사를 지향하는 게 마땅하다면, 위의 개념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지금 가능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리라 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새로운 텍스트를 조사 발굴할 수 있었던 필자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가능한 연구 거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필자의 관련 연구성과

첫째, ‘북한의 구전설화 연구’이다. 사실 그 동안에는 남한의 구전설화를 조사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북한의 구전설화 조사는 관심 밖에 있었다. 북한의 구전설화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것들 외에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다. 분단 이후의 북한 구전설화는 알 수가 없었다. 물론 분단 이후 북한에서 출판된 설화자료집들이 있지만, 김화경 선생님이 연구해 보고하였듯,<sup>7)</sup> 북한 당국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변된 자료들이기에 구전설화의 실상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고 북한에 넘어가 현지 조사

7) 김화경, 북한 설화의 연구(영남대출판부, 1998) 참고.

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필자가 생각해 낸 것은, 탈북자들을 통한 조사였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 급증한 탈북자들을 만나 조사함으로써, 전설, 민담, 현대판 유모어 등 분단 이후 북한 구전설화의 실상을 그 일단이나마 드러내어 학계에 보고할 수 있었다.<sup>8)</sup> 북한의 현대문학에 대해서는 그간 몇몇 학자에 의해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구비문학의 실태에 대한 보고는 아마도 필자의 연구성과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둘째, ‘고려인의 구전설화 연구’이다. 그 동안 중국 조선족의 구전설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기울여졌으나,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필자도 그렇게 무심하게 전통적인 텍스트들만 연구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존재에 대해 알고 나서, 특히 그들이 우리말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려인의 구전설화를 조사하기 시작해 연구도 하고 자료집을 내기에 이르렀다.<sup>9)</sup>

## 2) 앞으로의 가능한 연구

첫째, 북한의 여타 구비문학(민요, 민속극 등)의 실상에 대한 연구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북한에서 발행한 자료집에 실린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고 있지만,<sup>10)</sup> 필자가 시도했던 것처럼, 탈북자를 통해서, 또는 중국에 드나드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전통적인 민요, 민속극의 실상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무가의 경우는 6·25 월남민들을 중심으로 자료 채록이 이루어져 보고되어 있다.<sup>11)</sup>

둘째, 재외동포들의 구비문학의 실상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8) 김기창·이복규, 분단 이후 북한의 구전설화집(민속원, 2006) 참고.

9)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집문당, 2008) 참고.

10) 최철·전경옥, 북한의 민속예술(고려원, 1990) 참고.

11)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문화재관리국, 1965); 임석재·장주근, 판서지방 무가(문화재관리국, 1966); 김태곤, 한국무가집 III(원광대, 1978) 참고.

앞에서 언급한 고려인의 구전설화 연구는, 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는데, 다른 지역 고려인이나 사할린이나 여타 지역 재외동포의 구전설화 조사도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려인의 경우, 우리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세대가 고령이므로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의 연구가 기폭제가 되었는지, 지금 한 남대 연구팀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구전설화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지역의 연구를 위해서는 경비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필자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을 이용해 한국연구재단의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을 받아 가능했다. 현대문학 중심이지만 재외동포들의 기록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므로 생략한다.<sup>12)</sup>

셋째, ‘한국문학’의 개념을 더 확대해, ‘한국인에 의한 외국어 문학텍스트’로까지 포괄하는 시각을 가진다면, 일제강점기 한국문인의 일본어 문학텍스트, 일제강점기 한국학자의 일본어 논저들도 한국문학 또는 한국문학연구 텍스트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다루어져야 한국문학 또는 한국문학연구의 총체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근자에, 숭실대학교 동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에서,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자료총서’를 출간하고 있다든가, 동경에 거주하는 김광식 박사가 이들 설화집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보고중인데 고무적인 일이다. 필자도 조선총독부 기관지 『조선』에 수록된 일본인·한국인의 글과 자료들의 일부를 소개한 적이 있다.<sup>13)</sup>

12) 최근의 성과 하나만 소개하면, 조규익, 「구소련 고려인 작가 한진의 문학세계」, 한국어문학연구 59집(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385~423쪽을 들 수 있음.

13) 김기서·이복규, 조선총독부 기관지 일어판 <조선>지의 민속, 국문학 자료(민속원, 2004) 참고.

## 5. 문학과 비문학(음악·민속·구술문화·국어학)의 경계 허물기

‘한국문학’의 요건으로 ‘문학’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 문학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구분도 편의상의 것일 뿐, 사실 문학은 다른 분야에서 완전 독립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와 일정하게 관계를 맺거나 섞이기도 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예컨대 고려가요나 시조의 경우, 지금 우리는 가사에만 주목해 문학성을 논하지만, 사실은 노래(음악)이었거나, 노래(음악)이자 문학이었던 게 진실이라면,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문학 아닌 것들(비문학)에 대해 지나치게 결벽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음악, 민속, 구술문화, 국어학, 국사학, 한국철학 등의 인접 분야와의 경계를 허문달까 소통하려는 자세와 시각을 가져야만 한국문학 텍스트 발굴과 재조명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필자의 관련 연구성과

첫째, 개신교가사의 소개이다.<sup>14)</sup>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 종교가사에 개신교가사는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포교의 자유가 없었던 천주교와는 달리, 자유를 인정받고, 더욱이 선교사들이 서구의 찬송가를 가지고 들어와 이른 시기부터 그것을 번역해 찬송가로 삼았기 때문에 개신교가사가 불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이 그간의 통념이었다. 하지만 개신교가사는 존재하였다는 게 확인되었다. 길선주 목사의 <추풍석음가(秋風惜陰歌)>를 비롯하여, 초기 기독교신문과 『연산(燕山)전도문서』에 실린 일련의 작품들 및 선교사 게일과 이창직이 공동작인 <연경좌담>이 그것이다. 그런데, 개신교가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필자가 처음 밝

14) 이복규, 개신교가사(학고방, 2010) 참고.

힌 게 아니다. 음악학계에서 나온 석사논문<sup>15)</sup>에서 ‘연산전도문서’에 실린 작품들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이미 거론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문학계에서는 계속해서 모르고 있기에, 필자는 다른 작품들까지 더 찾아내 국문학계에 보고했다. 그 경험을 통해, 문학계와 음악계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가를 절감하였고, 이는 한국문학 연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다. 개신교가사는 음악이자 문학으로 존재했건만, 우리는 인접분야와 너무도 높은 담을 쌓고 있다는 반성을 하는 기회였다.

둘째, 고려가요 난해어구의 재해석<sup>16)</sup>이다. 그간 많은 이들이 고려가요의 난해어구들의 해독에 매달려 왔으나, 미해결 문제가 많다. <청산별곡>의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대목, <쌍화점>의 ‘드레우물’ 및 ‘우뭇룽’도 그 예이다. 필자는 민속학적인 자료와 기록 덕분에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 있었다. <청산별곡>의 대목은 민속에서 ‘짚대’가 ‘숫대’의 별칭인 점 및 <감로탕>에서 숫대(짚대) 위에 동물 분장 연희자가 올라가 악기를 연주하는 그림이 실려 있는 점을 근거로, 이 대목을 민속연희와 관련시켜 해독했던 김완진 선생의 견해를 새로운 자료를 들어 보강하는 보람을 누렸다. <쌍화점>의 어휘들은, “임금이 다래우물(烱艾井)물을 마시면 고자가 득세한다’는 속신이 있어, 그 우물을 허물고, 광명사 우물물을 마시는 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속어에 등리(藤梨)를 ‘달애(烱艾)’라고 하였다”는 『고려사』 권제 129 열전 최충헌조의 민속관련 고사를 근거로 새롭게 풀이할 수 있었다. ‘드레우물’은 바로 그 다래우물의 와전이고, ‘우뭇룽’은 바로 그 다래우물에 갔던 임금으로 보면 잘 풀릴 수 있다고 본 것이 그것이다. 그 동안에는 임금으로 보든 용으로 보든, 왜 임금이 백성이 이용하는 우물에 갔는지, 왜 이 연에서만 초현실

15) 고민정, 『연산전도가에 관한 연구』(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교회음악과 석사논문, 2000) 참고.

16) 이복규, 「고려가요 난해어구 해독을 위한 민속적 관건-청산별곡과 쌍화점의 일부 어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 2004.4, 53~71쪽 참고.

적인 존재인 용이 등장하는지, 각각 의문을 남겼던 게 사실이다. 필자의 이 성과는 민속 분야에 대한 경계 허물기에서 얻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쥐뿔도 모른다’ 계열 속담의 어원을 밝힌 것<sup>17)</sup>이다. 속담의 어원을 밝히는 것은 국어학자들이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게 학계의 분위기일 것이다. 그만큼 국문학과 국어학은 경계가 지어져 있다. 하지만 속담은 국어학 텍스트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구비문학 텍스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어휘의 어원을 밝히는 데도 둘 다 발언권을 가질 수 있거나 둘이 협동해야 할 일이다. 실제로, 국어학자들은 아직까지 이 속담의 어원을 속 시원하게 밝히지 않았다. 필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황청1리에서 실시한 서경대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에서 <진가쟁주(眞假爭主)>설화의 각편을 채록하였는데, 그 결말부에서 이 속담의 어원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학회에서 1차 발표한 적이 있다. ‘쥐뿔도 모른다’, ‘쥐뿔도 없다’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 계열 속담에서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어휘가 ‘쥐뿔’인데, 축자적으로 접근해서는 이 속담은 어불성설이 되고 만다. 하지만 제가 채록한 <진가쟁주>설화의 각편의 결말부를 보면 진짜 주인공 영감이 그 아내더러 ‘쥐불알’도 몰랐느냐고 힐난했다고 되어 있어, ‘뿔’의 본래 의미가 ‘불알’이었음을 알아냈다.<sup>18)</sup> 그렇게 봐야만 이 속담이 정상적인 말이 된다. 이 역시 국문학(구비문학)과 국어학의 경계를 허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사례라 생각한다.

넷째, 생애담 연구<sup>19)</sup>이다. 주지하다시피 요즘들어 전통적인 의미의 구비문학자료를 채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안동대가 주축이 되어 구비문학회 인력이 동원되어 실시되고 있는 한국구비문학대계 수정증보 사업에서는 이른바 ‘현대구전설화’와 ‘근현대구전민요’ 항목을 따로 설정

17) 이복규, 「‘쥐뿔도 모른다’ 계열 속담과 ‘뿔’의 어원에 대하여」, 은지학회 동계학술대회, 2010.12.30 참고.

18) ‘불알’의 고어가 ‘불’이기도 하다(표준국어대사전 참고).

19)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생애담 연구(지식과교양, 2012) 참고.

해 조사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up>20)</sup> 새로운 텍스트를 채록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생애담 연구이다. ‘문학성’을 중요시하던 기존의 자세만 고수해서는 구비문학연구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형편에서 자구책으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문학이든 무엇이든 결국 인간 이해를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생애담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필자도 이에 동조하여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생애담을 조사해 그 결과를 학계에 보고한 것이다. 필자가 좁은 의미의 문학 텍스트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 2) 앞으로의 가능한 연구

첫째, 고려가요 난해어구들의 민속적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언젠가 제주도 현지조사를 하는 김헌선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청산별곡>의 ‘느므자기’란 어형이 제주도 해변 마을의 방언으로 존속하고 있다니, 현지조사를 생명으로 삼는 민속학 또는 구비문학 연구자들이 나서서 이들 난해어구 해명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최근 강화도 답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길안내를 해준 양태부 선생한테 들은 바로는, 강화도에서도 ‘나쁜재’라는 해초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느므자기’라고 하니, 민속적인 접근이 계속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둘째, 속담의 어원 밝히기, 생애담 조사도, 여전히 우리의 발길을 기다리는 영역이라 생각한다.

# 6. 맺음말

이상으로, 필자의 연구 체험과 성과를 근거로 하여, 한국문학 텍스트

---

20) <http://gubi.aks.ac.kr/web> 참고.



의 발굴 및 재조명을 위해 경계 허물기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최근 어느 학술대회에서 원로교수는 요즘 제4세대의 특징을 거론하면서 “세부 전공분야에 집중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는데, 필자도 공감한다. 경계 지키기는 학회들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인문학의 위기를 초래하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한다. 경계를 허무는 데에서 활로가 개척되리라 보며, 인문학의 위기도 해소되어 가리라 전망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경계를 지어 한 우물 파기도 힘든데, 경계를 허물어버리면, 어떻게 완성도 높은 성과를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한 우물을 판다 해도 인접 영역과 담을 쌓아서는 결코 온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해야 하리라고 본다. 전통시대의 문학 개념은 지금과는 달리 매우 광의적이었으며, 지금도 규범으로서의 문학과 존재로서의 문학이 일치하지만은 않다는 사실 때문에도 그렇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첨언할 게 있다. 앞에서 거론한 몇 가지만이 한국문학 텍스트의 발굴 및 재조명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조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학술논문을 읽을 때 원전 확인하기<sup>21)</sup>, 한문(특히 초서<sup>22)</sup>)·고어·외국어 공부하기, 『해동문헌총록』(1638년 이전)<sup>23)</sup>을 비롯한 전통 시기의 목록집 확인하기,

21) 필자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조선』 중에 일문판과는 별도로 국문판이 따로 있었다는 것, 거기 실린 작품과 연구성果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는데, 기존 논문의 각주에 적힌 원전을 계속 추적한 결과 만난 행운이었다(이복규, 국문판 조선지 수록 문학작품 및 민속 국문학 논문들에 대하여, 국제어문학회, 2003.12, 421~451쪽 참고).

22) <임경업전>을 비롯해 수많은 고소설의 한문본을 비롯한 고전산문 가운데에는 초서로 필사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간찰의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초서로 되어 있으므로 초서를 모르거는 온전한 연구가 불가능하다.

23) 소재영 선생이 1986년에 일본 천린대 도서관에서 발굴한 기재 신광한의 <기재기이>의 경우, 이미 『해동문헌총록』 「제가잡저술(諸家雜著述)1」에 “기재기이(企齋記異) 일질(一帙). 소기자(所記者) 범사사(凡四事), 안빙몽유록(安憑夢遊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RISS 통합 검색’ 활용하기<sup>24)</sup> 등이 그것이다.

---

錄), 서재야회록(書齋夜會錄), 최생우진기(崔生遇眞記),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이라고 되어 있다. 만약 연구자들이 이 『해동문헌총록』을 보았다면 기재기이의 발견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도 <왕시봉전>을 발굴했을 당시, 중국고전희곡목록집을 몰랐기 때문에, 이를 창작국문소설로 오인해 발표한 적이 있는데, 모두 전통 목록집 확인하기가 고전 연구에서 얼마나 기본적인지 일깨워주는 사례라 하겠다(이복규, 초기 국문·국문본소설, 박이정, 1998 참고).

- 24)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선설화조사보고서인 『조선전설급동화(朝鮮傳說及童話)』를 최근 강재철 교수가 발굴하였는바, 전적으로 이 도구를 활용한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강재철,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선설화조사자료의 발굴과 그에 따른 해제 및 설화학적 검토」, 비교민속학 48, 비교민속학회, 2012.8, 273~306쪽 참고).

## 참고문헌

- 강재철,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선설화조사자료의 발굴과 그에 따른 해제 및 설화학적 검토」, 비교민속학 48, 비교민속학회, 2012.8, 273~306쪽.
- 고민정, *앵산전도가에 관한 연구*(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교회음악과 석사논문, 2000).
- 김기서·이복규, *조선총독부 기관지 일어판 <조선>지의 민속*, 국문학자료(민속원, 2004).
- 김기창·이복규, *분단 이후 북한의 구전설화집*(민속원, 2006).
- 김태곤, *한국무가집 III*(원광대, 1978) 참고.
- 김화경, *북한 설화의 연구*(영남대출판부, 1998).
- 서대석, 「국문학 연구 60년의 흐름과 반성」, 국어국문학 161(국어국문학회, 2012), 20쪽.
- 심경호, 「오륜전전에 대한 고찰」, 애산학보 8(애산학회, 1989), 111~130쪽.
- 이복규, *초기 국문·국문본소설*(박이정, 1998).
- 이복규, 국문판 조선지 수록 문학작품 및 민속 국문학 논문들에 대하여, 국제어문 29, 국제어문학회, 2003.12, 421~451쪽.
- 이복규, <오륜전전서의 재해석>, 어문학 75(한국어문학회, 2002), 347~364쪽.
- 이복규, 「‘쥐뿔도 모른다’ 계열 속담과 ‘뺨기’의 어원에 대하여」, 온지학회 동계학술대회, 2010.12.30.
- 이복규, 「고려가요 난해어구 해독을 위한 민속적 관건-청산별곡과 쌍화점의 일부 어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30, 국제어문학회, 2004.4, 53~71쪽.
- 이복규, 「현대 시집 서문과 전통시대 시집 서문의 비교」, 한국고서연구

- 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서경대학교, 2012. 5.  
19, 3~18쪽.
- 이복규, 개신교가사(학고방, 2010).
- 이복규, 우리 고소설 연구(역락, 2004), 105~123쪽.
-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집문당, 2008).
-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생애담 연구(지식과교양, 2012).
-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문화재관리국, 1965) ; 임석재·장주근,  
관서지방무가(문화재관리국, 1966).
- 조규익, 「구소련 고려인 작가 한진의 문학세계」, 한국어문학연구 5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385~423쪽.
- 최철·전경옥, 북한의 민속예술(고려원, 1990).

<Abstract>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Discovery and  
Re-illumination of Korean Literary Texts  
- Focused on the Necessity of 'Breaking up the  
boundary' through Experience -

Lee, Bok-Kyu

This paper dealt with what ar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discovery and re-illumination of Korean literary texts. It dealt this question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breaking up the boundary' through the author's research experience not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The discovery and re-illumination of new texts are not done naturally, and the fact that they are possible with the necessary conditions was argued based on the author's research experience.

What is necessary for the discovery and re-illumination of Korean literary texts? It emphasized 'breaking up the boundary.' It viewed that the discovery and re-illumination of Korean literary texts can be vitalized if the boundary between domains is broken up. It suggested that the following four kinds of boundary should be broken up: first, the boundary between classical literature and contemporary literature; second, the boundary between written literature and oral literature; third, the boundary between Korean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texts for Koreans) and non-Korean literature (foreign literature texts for Koreans and Korean literature text for Koreans); and fourth, the boundary between literature and narrative literature (Music, folklore,

oral culture, and linguistics) should be broken up.

As you know, currently Korean academics of literature are divided into several domains: i.e. divisions between classical texts and contemporary texts; between documentary literature and oral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and non-Korean literature; and between literature and narrative literature, etc. However, they are just classifications for operational convenience, and Korean literature as an existence would be something holistic and undifferentiated. Even if one works on literature dividing domains, this fact should not be forgotten, so that our study can contribute to identifying Korean culture and who Koreans are so as to revolve the crisis of humanities. For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by discussing the evidences from the related works the author has made so far, what can be done in the future also were suggested.

Key Words : Texts, boundary, Discovery, Re-illumination, classical literature, contemporary literature, oral literature, written literature

■ 논문접수 : 2013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3년 3월 20일

■ 게재 확정 : 2013년 4월 4일